

웃둥 보살 빛둥 거사 <44>

구성 : 김흥인



나무를 베어 버린 사람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국왕에게 키 크고 가지가 무성한 좋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장차 열매를 맺으면 향기롭고 맛있을 것 같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왕에게 다가가지 왕은 그에게 말했다. "이 나무는 장차 맛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먹지 않겠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나무는 높고 넓어 아무리 열매를 먹고 싶어도 얻을 도리가 없겠군요." 그는 그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베었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한갓 수고만 했고 다시 나무를 세우고자 했으나 이미 죽어 버려 살아날 수가 없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법의 왕인 부처님에게는 세월의 나무가 있어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 마음으로 원하고 즐겨 하여 그 열매를 먹으려면, 마땅히 계율을 지키고 온갖 공덕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저 나무를 베어 버린 다음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계율을 부수는 사람도 이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통현장자가 논을 짓다 통현조론(通玄造論)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장자인 통현이 <화엄경>의 논을 지을 때 밤에 불이 없어 자신의 입에서 흰 광명을 비추어 경을 보고, 호랑이와 여인들이 나타나 논을 짓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이통현(李通玄) 장자는 중국 당나라 사람으로 고급의 학문을 두루 연구했으며 유교, 불교 경전에 정통했다. 719년부터 80회를 가지고 두문불출하며 논을 지어 경을 해석했으며, 매일 대추 10개와 잣나무 잎 먹 하나씩 먹었다고 하여 조백대사(藜栢大士)라 불렸다. 730년 96세로 감중에서 입적했으며, 저서로 <화엄회석> <십문현의배과석략> 등이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는 개원 연간 <화엄경>을 가지고 맹현의 고산이라는 노비 집에 이르러 논을 지어 <화엄경>을 연창하면서 정원 밖을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을 계속하니 고산이나 이웃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의 거동을 추측할 수 없었다. 그는 날마다 대추 열 알과 촉백나무 잎으로 된 떡 한 조각만 먹었을 뿐 나머지 다른 물건은 필요한 것이 없었다. 그 후 남곡의 마가촌에 있는 옛 불당으로 거처를 옮겨 작은 절을 짓고 한적한 곳에서 편안하게 쉬었는데, 고씨가 대추와 떡을 공급하고 또한 그가 지은 논도 경전과 아울러 그곳으로 가져왔다. 어느 날 통현 장자는 한시의 정원으로 가다가 도중에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는데 통현은 호랑이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업고 온 경전을 호랑이 등에 싣고 뒷마을에 있는 토굴에서 걸어갔다. 논을 지을 때 밤에 기름과 촛불이 없



고산의 판화(高山의 판화) 1673년 간행, 반곡(半谷) 27.2x18.0cm

어 밤마다 붓을 잡고 있으면 그의 입의 두 모서리에서 흰 광명이 나와 그 길이가 한 자 남짓하여 빛나게 방안을 비추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토굴에서는 아름답고 청아한 두 여인이 나타나, 매일 음식 한 합을 주었고 통현이 다 먹고 나면 그곳을 거두어 그곳을 떠났으며, 이렇게 하기를 무려 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종이와 먹에 이르기까지 공급해 보내오는 것이 모자람이 없었는데 논이 이루어져 훌륭히 사려져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지은 화엄론은 40권이며, 총괄하면 80권에 달한다. 이것은 <화엄경>의 대의를 밝힌 책이다." 이 본문을 통해 많은 중생을 위한 원력의 삶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불보살들이 보살과 줄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시가 있는 도량

나무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나를, 없애는 게 나무(無)라고 가슴에 묻어둔 거, 한(恨)없이 풀어내고 서로가 잡아주면서 같이 가는 길 하나

말이란 함부로우이 헤프게 쓰질말라
곱게 다듬은 말씨, 여운이 있어 향기롭고
사랑도 울림과 같이, 퍼질수록 꽃핀다

-김월준/유심> 5·6월호

빙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

지난 생애에 맺어진 인연법에 의해 잡재의식(말라시, 아뢰야시)에 원한의 씨앗을 심었다가, 보복을 겪는 행위를 빙이라 한다.

-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겪는 일들

1. 지금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를 아는자는 많다. 그러나
2. 조상 누구가 무엇을 요구한다면서, 천도재를 하면 빙의에서 벗어나고 말한다.
3. 이러한 말을 들은 관계자들은 순간적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다 앞으로 무슨 재앙이 닥쳐온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
4. 천도재란, 법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다.

- 아래와 같이 빙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5.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해안으로 원귀들을 만난다.
6. 한 두 영가의 작용은 보통 우물증이라 하지만, 영가들의 집단체(5-6위 이상)로 빙의된 사람의 몸 속에 자리하고 있다.
7. 자리 잡고 있는 영가들의 업을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때 대단한 기도의 힘 즉, 법력이 작용한다. (한 영가당 3-4일 정도 소요됨)
8. 업이 소멸되면, 영가의 에너지가 쭈욱 빠져서 실신한 사람처럼 되며, 이러한 영가를 해안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9. 진행자의 법력으로 '반야선'을 받아 영가를 태워서 영계로 보낸다. (사약(지옥, 아귀, 축생, 수라)을 벗어나서 천상계의 28천의 권속이 된다)

* 지리산 씨래봉 아래 해발 1100고지에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15년간) 수행하면서 영가의 악업을 녹여주고, 제거하여 주변 반야선을 받아 영계로 보내는 수행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영가는 반드시 반야선에 의해서 영계로 가게된다)

** 바라옵나니 이 공덕 널리 퍼져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여지이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3동 1596-11번지 103호
서진포교원 선운 합장
문의 010-6289-1233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대성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김정도
신도회장 김우영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 팩스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가격: 전권 200,000원
크기: 4x6배판 (19x26cm)

본문법회식대전 / 총 1권 2,745 페이지
가격: 100,000원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진인
1. 입제 불공의식	○ 화엄시식	1. 가정안택 의식
2. 삼우제 불공의식	○ 삼우제시식	2. 사무설고사의식
3. 초제 불공의식	○ 지장시식	3. 자동차고사의식
4. 이제 불공의식	○ 보현시식	4. 선박 고사의식
5. 삼재 불공의식	○ 문수시식	기타편
6. 사재 불공의식	○ 미륵시식	宗 釋
7. 오재 불공의식	○ 보문시식	삼재설 해소의식
8. 육재 불공의식	○ 묘음시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9. 칠재 불공의식	○ 관음시식	梵 華

統合佛敎儀式大典
문의전화: 055)747-8350, 017-552-7350
게재번호: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김묘경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감상선향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층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증-5041호